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9 / 05-06

열매소식지

특집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법률가의 시선 “낙태죄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시각에 대하여”

의사의 시선 “낙태에서 생명으로”

기독교윤리학자의 시선 “생명권 대 생명권, ‘살리는’ 교회의 윤리적 과제”

CONTENTS

특집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법률가의 시선 “낙태죄”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시각에 대하여_ 정종욱 003 의사의 시선 “낙태”에서 ‘생명’으로_ 홍순철 006 기독교윤리학자의 시선 “생명권 대 생명권: ‘살리는’ 교회의 윤리적 과제”_ 백소영 009
인터뷰	인터뷰 기윤실이 만난 사람_ 송인수(기윤실 이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012 “들끓는다는 것, 세상의 고통에 직면하는 예수 제자로 사는 것”
더 높은 책무성	자발적불편운동 미세먼지에 맞서는 자발적불편 워크숍-공기청정기 만들기 후기 015 교회신뢰운동 <좋은나무> “더 아름다운 유산 남기기” 016 청년운동 나를 찾는 토요일 3회차 “마음아 안녕, 들어다봄, 돌봄” 후기 019 바른가치운동 평신도의 상상력 첫 번째 이야기 “기독교는 왜 육을 먹을까?” 후기 020 사무처 특별후원요청 보고 “소중한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21 연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세미나” 후기 022
더 깊은 투명성	3·4월 재정보고, 후원자명단 023
더 넓은 공공성	활동보고 활동계획 / 활동스케치(광운선교회 방문/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긴급좌담회) 026 전국기윤실협의회 소식터 027 자발적불편운동 자발적불편운동 여름 캠페인 광고 028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섬기는’ 사람들



이사 백종국(이사장) 강석창 강영안 권장희 김양재 김홍식 문애란 박재우 박종근 방선기 배종석 송인수 유해신 이문식 이의용 임성빈 정병오 전재중 정애주 정현구 조홍식 주광순 한정화 홍정길 감사 황병구 자문위원회 손봉호(위원장) 곽상배 김경섭 김일수 라영환 손인용 이동원 이장규 이진오 황준성 공동대표 정병오 배종석 정현구 상임집행위원회 정병오(공동대표, 위원장) 배종석 정현구(공동대표) 신동식(자발적불편운동본부장) 조성돈(교회신뢰운동본부장) 이상민(좋은사회운동본부장) 목광수, 박선영(바른가치운동본부장) 고재길(기독교윤리연구소장) 김진우(상집위원) 김상덕(상집위원) 기독교윤리연구소 고재길(소장) 임낙형(부소장) 성신형 송준인 신원하 이상원 이장형(운영위원) 강진구 김동춘 김승곤 노영상 임성빈 추태화 홍순원(연구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조홍식 이만동(공동위원장) 이재민 이주환 조태례(부위원장) 라창호(교회상 운영위원장) 강정규 고기숙 권오용 김미혜 김동배 김정진 김수정 김현호 두재영 박지영 배성훈 송시섭 신경윤 오세란 오창섭 원명순 이무영 이영분 장동한 장원종 교사모임 한성준(대표) 김홍인(부대표) 김예희(사무국장) 권순홍 김중대 김진우 노명일 서현희 우희정 이미나 이화진 임현경 정연석 천무현 최나영 사무처 김현아 박재민(팀장) 윤신일 조희준 최진호(간사) 전국기윤실협의회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익산 인천 전남 전주 진주 청주 / (준비지역) 정읍 제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9년 5-6월호 통권 270호
소재지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54길 30,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발행인 백종국 발행일 2019. 6. 1
편집인 정병오 편집 윤신일 디자인 정호연

보고기간 2019년 3월 24일-2019년 5월 25일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소식지는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이에 인쇄했습니다.

표지종이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양코르지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20%의 그린라이트지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헝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률가가 보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낙태죄'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시각에 대하여

지난 4월 15일, 기윤실 바른가치운동본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패널로 참여한 세 분(정종욱 변호사, 홍순철 박사, 백소영 교수)의 글을 본 소식지에 실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이 과연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 기윤실에서 주최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관련 긴급 토론회에 발표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기윤실 측의 요구는 토론회를 개최하기 전에 해당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요약하고 해설해 달라는 것이었다. 발표 마지막 부분에 낙태죄 위헌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필자는 “여성 인권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판결이고, 헌법불합치 판결의 의미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청중 질의 시간에 목사 한 분이 필자에게 위의 질문을 던지셨다. 그분은 필자의 의견이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확신하시는 것 같았다.



글. 정종욱(기독교법률가회)

그렇다면 과연 낙태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기독교적'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일부 교계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다. 반발의 요지는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제한 없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역설하며, 태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는 살인과 같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적 가치가 세상에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지만, 이번 현재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법률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생각해보자.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적 시각이라고 가정했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 중절을 한 교인을 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해야 할까? 교회의 기록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낙태 행위를 한 교인에 대해 교회가 권징을 해야 할까? 아니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용서해줘야 할까? 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교회의 규율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권징을 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죄에 대한 용서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교인을 용서하고 교회가 그들을 받아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처럼 낙태 문제는 간단히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며,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 내부에는 합의된 견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낙태죄와 관련된 문제는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입장만 가지고는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법률, 철학, 신학, 종교, 의학, 생명 윤리, 생명 공학, 경제학 등 여러 방면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법률적인 판단, 철학적인 판단, 과학적인 판단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 낙태죄가 위헌이 되었다고 해서 낙태 행위를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인들은 낙태죄와 관련된 사안이 가지는 복잡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의 교리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복잡한 사안을 단순하게 재단하려고 한다. 낙태죄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이 일반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데는 이러한 이유도 크게 작용한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일부 기독교인이 비판하는 것처럼 낙태를 전면적으

로 허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낙태죄 폐지가 곧 낙태에 대한 전면적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제정된 현행법이 오늘날의 복잡한 현실을 규율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적절하게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관련법을 수정해보자는 의미이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로 판결을 내린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헌법불합치'는 변형 결정 중의 하나인데, 해당 법률을 즉시 무효로 하는 '단순 위헌' 결정과는 달리,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2020. 12. 31.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책임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이 실효성 없는 주장임을 지적해왔다. 한 해에 낙태가 이루어지는 횟수는 10만여 건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기소가 되는 횟수는 한해에 10여 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사문화(死文化)되었다고 판단했다. 형벌은 위하력¹⁾을 발현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낙태죄 조항은 해당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는 것이다.

또한 형벌의 위하력이 제대로 발현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은 이를 두려워하여 오히려 음성적인 방법으로 낙태를 해 생활에 더 큰 곤란을 겪게 된다고 헌법재판소는

1) 위하력: 형벌로 위협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힘 - 편집자 주.

말한다. 임신, 출산, 양육은 개인의 결정이지만, 산모가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사회 환경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헌법재판소는 산모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고 있다고 국가를 강하게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대립적인 구도를 넘어서, 두 주체의 기본권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산모와 태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체들인데, 이 둘을 대립적인 구도로 보아 한 주체를 살리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산모와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의 관계로 고정시켜서는 낙태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와 위헌 판단을 한 7인의 헌법재판관들 누구도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말은 더욱 하고 있지 않다.

모자보건법에서 5가지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법 자체가 오래되었고, 형벌 조항이 사문화되는 등 그 실효성 자체가 의문스럽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낙태를 억제하겠다는 초기 입법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낙태는 음성적으로 만연하게 되었고, 낙태죄 조항이 여성들에 대한 상대 남성들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법률은 현재의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낙태에 관한 조항은 사실상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합

의를 거쳐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낙태죄에 관해 기독교계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들을 보고 있자면, 목회자와 교인들이 지나친 ‘법 만능주의’ 혹은 ‘형벌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인간의 생활에서 법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법은 결코 인간 생활 전부를 규율할 수 없다. ‘법대로 하자’는 사람보다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도덕성과 윤리적 능력을 발휘해 풀어야 할 문제들을 법을 의존해 해결하다 보면 오히려 인간의 자율성을 축소시키고, 생활 세계를 법의 통제 아래 가두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성경도 법조문의 강제력이 아닌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던가?

형법에 낙태죄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존재했지만, 낙태를 막는 데는 늘 실패해 왔다.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로 최후의 방어선이 해체된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위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기독교는 낙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가? 형법의 실패는 곧 교회의 실패이기도 했다. 기독교는 낙태에 대한 진정한 기독교적 입장을 전혀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교회의 책임을 저버리고 형법 조항에만 그 책임을 미뤘었던 것은 아닌가. 철저히 반성을 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기독교는 ‘형벌의 종교’를 넘어 ‘사랑과 용서의 종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¹¹

의사가 보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낙태'에서 '생명'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판결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낙태 여부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개정을 원하는 여성이 75.4%임을 보고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하였다. 현재의 낙태죄 처벌조항이, '사회 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한 입법을 다시 할 것을 판결하였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낙태죄 폐지가 낙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정리해야 할 때이다. 입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한다.

첫째, 태아 기형은 낙태 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각 시기마다 사회적 트렌드가 있었다. 과거에는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며, 부모 제사를 지내준다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여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태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대가족이 해체되고 제사 문화가 감소하고 있는 최근에는 더 이상 여자아이라는 것이 낙태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태아 기형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에는 입술갈림증, 손가락 기형, 신장 기형, 심장 기형, 다운증후군 등 다양한 선천성 이상이 낙태 사유였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태아 기형이 치료 가능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로 장애인도 함께 사는 사회가 구현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선천성 이상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치료와 재활,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가의 여부가 선진국의 척도가 되고 있다.



글. 홍순철(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무, 산부인과 의사)

일부에서는 무뇌아를 낙태 허용 사유로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다. 비록 무뇌아 대부분이 출생 후 1달 이내에 사망하지만, 아이와 산모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할 때, 분만 후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통한 성숙한 이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무뇌아도 낙태 허용 사유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태아 기형을 낙태 허용 사유로 포함시키게 되면, 임산부와 의사는 더욱 태아 기형을 선별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임산부와 태아 건강과는 별개로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될 것이다.

둘째, 낙태의 허용기간은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헌법 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지 않았다. 위헌으로 판결하게 되면 임신 기간 중의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서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주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임신 22주 이내에선 자유롭게 낙태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임신 2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낙태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라는 요구이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인간에 가까운 시기는 언제이고, 낙태 수술 후 여성의 건강에 부담을 덜 주는 시기는 언제인가? 의학적으로 임신 4주 3일 이전을 착상전기로 분류하고, 임신 4주 3일부터 임신 10주까지를 기관형성기로 분류하며, 임신 10주 이후를 태아기로 분류한다. 즉 임신 10주(마지막 생리일 기준 10주)부터는 태아의 장기와 팔, 다리가 모두 형성되어 사람의 모습을 완성한다.

여성의 건강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낙태 수술은 여성의 건강에 많은 부담을 준다. 수술 후 골반염, 자궁내막염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난임, 자궁외임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다음 임신에서 전치태반, 유착태반 등 고위험 임신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임신 주수가 진행될수록 여성의 건강에는 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의 건강 문제가 덜 부담이 되는 임신 주수는 언제인가? 임신 8-10주 이전이 낙태 수술이 그나마, 여성 건강에 부담이 덜 되는 시기이다.

셋째, 낙태 시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분만을 담당하는 많은 산부인과 의사는 오늘도 임신 18주, 20주, 28주 임산부의 태아를 생존 가능 주수까지 임신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낙태 수술을 원치 않

는 의사나 기관에게 낙태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캐나다 등 낙태를 허용하는 외국의 경우처럼 낙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의사의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넷째, 낙태 수술은 급여화하여 여성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호하고, 의사에게는 임신 산전 진찰비, 분만 관련 수가 증가로 임신 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낙태 수술의 증가를 막아야 하고, 낙태가 필요한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낙태 수술의 건강 보험 급여화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사에게는 임신 유지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여 임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10여 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이다. 2018년 4분기에는 드디어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를 앞지르는 시대가 되었고,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8로 드디어 가정당 1명의 아이도 안 낳는 사회가 되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 것인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육아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인가 아니면, 자유롭게 낙태하는 사회인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고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성숙해 가고 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의 '여성 중 낙태죄 처벌조항 개정을 원하는 여성이 75.4%'라는 결과는 모든 낙태의 허용이나 처벌조항 폐지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는 합리적인 사회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시험대에 선 것이다. 이것이 낙태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실험은 실패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만큼, 앞으로의 사회적 주제는 '낙태'가 아니라 '생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사라져가는 생명을 보호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최필**

기독교윤리학자가 보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생명권 대 생명권: '살리는' 교회의 윤리적 과제



글. 백소영(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초빙교수)

전화를 받고 망설였다. 촉박한 일정보다 더 부담스러웠던 것은 패널의 구성이었다. 공적 활동을 통해 평소 '태아의 생명권'에 대하여 확고한 입장을 밝히셨던 분들이었다. 그럼에도 결국 '예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임신 중단이라는 윤리 문제에 대해 여성의 경험과 의미가 빠진 채 '기독교적 입장은 하나뿐'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윤리 판단 때문이었다. 그래서 주최를 하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부탁을 했다. "5대 1은 너무해요. 페미니스트 활동가 한 분을 더 초청해주세요." 편을 갈라 싸움을 하고자 함은 아니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내가 발화할 '기독교적 입장'이 결코 나 한 사람만의 예외적 목소리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밸런스 장치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여 <믿는페미> 활동가인 '달밤'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물론 역사상 '하나의 기독교'란 존재한 적이 없었고 특정 윤리 문제나 사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대립해 온 것이 사실이다. 모두가 '성경적' 권위를 근거로 서로 다른 주장을 했고 때론 화형도, 전갱도 불사한 갈등과 반목이 신앙과 신학의 이름으로 자행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낙태(임신 중단)가 이렇게 첨예한 기독교 윤리적 논쟁의 주제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신분이나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던 전근대(pre-modern) 사회에서는 자신의 가문이나 공동체를 위협하는 '원치 않는 임신'을 '신앙

과는 별도로'로 처리했다. 주로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정도로 말이다. 그런데 근현대(modern) 사회에 와서 비로소 교회는 '낙태(임신중절)'을 윤리적 이슈로 공론화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역사적 성찰과 페미니스트적 시각을 접목하여 다각적으로 연구한 비벌리 해리슨(Beverly Harrison)에 의하면, 임신중절 이슈가 근현대 사회에서 대두한 까닭은 민족국가 형성 과정에서 특정 인종과 종교적 집단의 세력 확산이라는 정치적 이유와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는 윤리적 동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였다는 것이다. 결국 '나라'에서 출산권을 관리하게 된 셈인데, 여성들이 시민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이 생겨나면서 필연적으로 공적 논쟁이 뒤따랐고, 유럽에서는 1960년대,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낙태죄 폐지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았다.

그런데 서구권, 특히 미국에서 기독교의 내부 연대는 오히려 형법상의 낙태죄 폐지 이후에 더욱 강화되었다. 실제로 미국에서 낙태죄가 폐지된 직후 얼마 동안은 임신 중단 사례들이 급증하기도 했기에(그러나 이후 제도적 안정 기반이 확보되면서 오히려 형법 폐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여성들에 대한 기독교적 적개감과 정죄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가 온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가 '낙태죄'라는 형사적 처벌 방식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라는 판정을 내리면서 우리나라의 교회와 종교 단체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 모임도 만들어진 것이리라. 그런 판단을 하며 앞으로 전개될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답과 다른 말을 할 나에게 쏟아질 비난을 예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토론에 임했다.

그런데, 의외였다. 생명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수정란이 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약자 중의 약자'인 태아를 '모성 인권'이라는 말로 자행되는 낙태(라고 쓰고 '살인'이라고 읽는)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선언을 들을 줄 알았는데, 거기 모인 어느 패널도 공적으로는 그런 말을 발화하지 않았다. 전(前) 낙태반대운동연합회 대표로 활동하신 김현철 회장은 교회가 미혼모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출산을 감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지지기반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과,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한 성교육에 방점을 찍는 말씀을 하였다.

산부인과 전문의이며 헌신된 신앙인인 홍순철 교수도 현재 진보적인 정당에서 주장하는 낙태 가능 임신주수에 의학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8-10주여야 한다는 '주수' 조정 방안으로 접근하였다. 물론 낙태가 소위 정상아와 비정상아를 가르는 세속적 기준을 따라 생존력이 떨어지는 태아를 임신중지 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우려를 표현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해야 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원론적으로는 나 역시 동의하는 지점이었다. 같은 전공자로서 평소 학회에서 자주 읽는 기독교윤리학자 문시영 교수도 징벌적 수단이 사라진 이후의 논의는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말한바 '생명을 환대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공론화하는 공공신학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젊은 여성이요 페미니스트 활동가로서 '달밤'은 이번 현재의 판결이 그동안 여성을 재생산 도구쯤으로 여기면서 '임신 중단'이라는 윤리적 문제의 토론에서조차 당사자성을 배제당하게 만들었던 가장장적인 법과 논의를 종결시켰

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다.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임신 중단'은 임신 상태에 있는 당사자 여성의 주체적인 자기결정권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굳이 나누자면 태아보다는 임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에 우선권을 두는 주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낙태죄 폐지는 곧 자유롭고 반복적인 임신 중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 무엇보다 적절하고 공적인 성교육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 자체를 예방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나는 우려했던 것보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지점이 보인다는 점에서 긴장을 조금 늦추게 되었다.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패널조차 '혼전 순결'이라는 개신교 성윤리의 핵심적 도덕 가치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나의 '제도(institution)'로서 결혼이 더 이상 인간 보편의 상황인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까닭일 테다.

사회학적으로 말한다면, 인류 사회가 확대가족을 중심한 전근대 사회에서 개인 중심의 근대적 기형으로 전이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존재한 것이 핵가족이다. 개신교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이 겹쳤던 근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이 마치 인류 보편의 항구적인 단위요 하나님의 창조질서인양 해석했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봐도 다양한 공동체적 생활이 존재하되 핵가족이 보편 타당한 인간 제도로 천명되어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직자의 독신 서약이 가진 문화적 폐단과 싸우며 시작된 개신교 신학의 '가정' 담론 안에서 성윤리를 지속해온 까닭에, 오늘날 비혼 인구가 늘고 개인 위주의 생활이 이어져 50대 청년부원이 등장하게 된 후기-근대에 와서도, 여전히 성문제를 결혼 전과 후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성문제를 제도가 아닌 '관계'로 접근하며 기독교 윤리를 전개해왔던 나는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늘 참여한 갈등을 경험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혼전 순결'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고, 당일 토론의 장에서 관

건이 된 것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올바른 성교육’으로 논의가 수렴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무엇이 ‘올바른 성교육’인가 하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꽤 널 간 이견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성성(sexuality)이 우리를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임을 고백한다면, 한 가지는 동의 가능하다고 본다. 성관계란 단순한 놀이나 도구적 쾌락 수단이 아니라, 나의 경계를 넘어 너와 연합하는 가장 친밀한 교제의 행위라는 점 말이다. 성관계란 자기초월과 연합이라는 신비한 경험을 나누는 ‘거룩한 행위’라는 말이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성행위와 재생산이 결혼제도 안에서 인과의 문제로 이해되었지만, 더 이상 제도적으로 이 둘이 함께 묶여있지 않은 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성적 연합의 거룩성을 말해야 할까? 임신 중단 문제는 사실 단일 이슈 하나로 접근하기보다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이 지점에 대한 공동 작업이 가능하겠다는 희망이 보였던 토론의 장이었다.

다만, 페미니스트 윤리학자로서 안타까웠던 것은 ‘헌법 불합치’ 판결문에도 명시된 임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여전히 토론에 임하는 ‘남성들’의 언어와 사고에서 가려지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자신의 물리적, 정서적 건강을 위협하면서까지 임신 중단을 결정하는 여성 당사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까? 이런 삶의 정황에 대한 구체적 관심에 대한 논의 없이, 낳는 결정을 한 모성을 칭송하고 낳게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방법론을 논하는 느낌이 들어서 씁쓸했다. 물론 나 역시, 태아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품은 여성을 또 하나의 ‘생명’으로 응시하며 그 생명이 안전하고 소망스럽게 임신상태를 유지하고 아이를 낳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회와 사회가 ‘사회적 자궁’이 되어주자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 말은, 혼란과 위협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임신 당사자를 조정하고 훈육하여 출산으로 이끄는 기술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임신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정보와 선택지를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결국 임신 중단은 윤리 문제는 ‘생명권’ 대 ‘생명권’이 충돌하는 ‘모럴 딜레마’의 현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 문제는 선과 악 사이의 자명한 선택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동안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라는 대립적 논의 속에서 임신 중단 문제가 마치 ‘생명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의 문제인 양 접근해 왔는데, 이 질문 속에 가려진 것은 ‘임산부 여성도 생명’이라는 사실이었다. 태아보다 더 오래 산 생명이에요 이미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온 생명인데, 임신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권이 물리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위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사실 ‘프로초이스’라는 말도 그렇다. 대부분 이를 ‘낙태 선택을 선호하는 권리’ 정도로 이해하는데 본뜻은 ‘프로크레이티브 초이스(procreative choice), 즉 출산 선택을 의미한다. 죽일 선택이 아니라 태중에 품고 기르며 낳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이라는 말이다.

만약 일부 보수적 기독교인들의 우려처럼 낙태죄 폐지가 태아를 ‘제거해도 되는 세포 덩어리’ 정도로 치부하게 만들 것이 걱정된다면, 이는 생명과 관계에 대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담론 형성으로 대처할 일이지 형벌의 강화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어떤 상황이든 태아를 낳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낳지 않는 선택을 하는 여성을 정죄하는 대신에 최선을 다해 우리 사회와 교회가 낳는 선택을 해도 산모의 생명권이 위협받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이다.

결국 낙태죄 폐지는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독교인인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협하는 결정이 아니라, 신앙의 이름으로 더욱 열심히 관계적 사랑을 논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핵가족 내에서 책임지는 방식이 아닌 상황에서 아기를 낳아도 아기와 산모의 생명이 안전적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을 시작하라는 신호탄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커다란 가족 공동체이다. 생명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윤리 문제를 앞에 두고서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정죄함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 말이다. **한**

들끓는다는 것, 세상의 고통에 직면하는 예수 제자로 사는 것.

기윤실이 만난 사람

송인수(기윤실 이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어떤 분이 SNS에 공직을 맡게 되었다는 인사를 올렸다. 여러 사람의 축하의 인사 속에 낯익은 이름, 송인수(기윤실 이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의 댓글이 있었다.

“사람 속에 들끓는 것을 가지고 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진 것을 폭발하지 못하니, 폭발할 곳을 찾은 것 잘하신 것입니다.” (...) 들어가실 때 반드시 “이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 목표를 넘어서면 멈춘다”는 ‘인생의 내규’가 있어야할 듯해요. 그게 없으면, 보이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사라지고 자칫 길을 잃기 쉽습니다.”

직감적으로 이런 조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이 가까이 있어 삼각지 골목에서 종종 마주치지만, 의외로 진득하게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본 일이 없다. 그래서 찾아갔다. 들끓는 것에 대해서, 인생의 내규에 대해서 듣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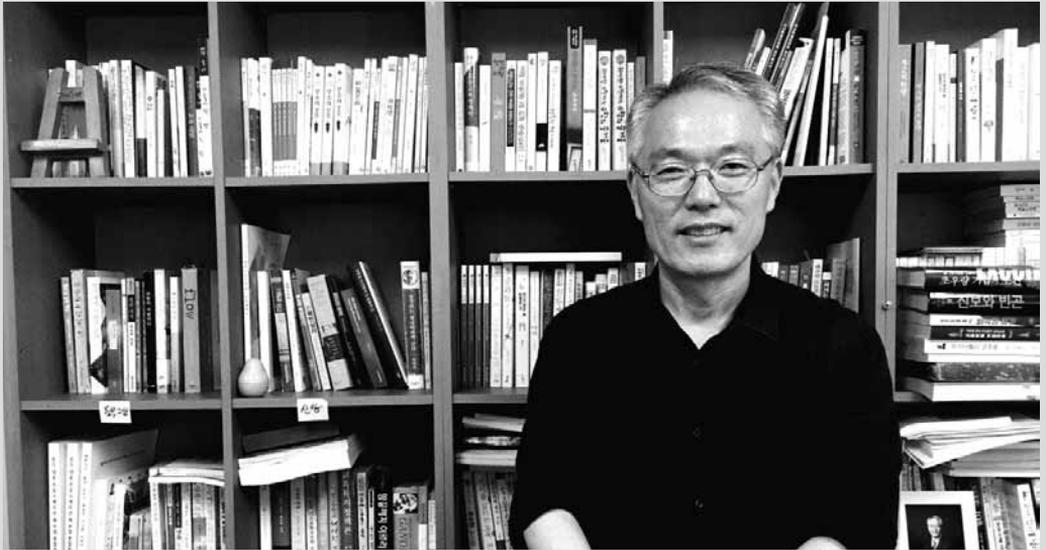
기윤실 : 댓글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직접 만나서 들끓는 것에 대해 묻고 싶었다.

송인수 : 공직에 간다고 했을 때 축하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들어가서 주변의 흐름에 파묻혀 존재감을 잃은 사람을 많이 봤다. 공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면 들어가기 전 목표를 설정해야한다. 가슴 속에 그 목표의 좌표를 품고 들어가야 현실의 유혹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정리가 안 된 채로 들어가면 수많은 이해관계에 포섭되어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최근에 공직을 맡게 된 후배에게도 목표를 몇가지로 정리하고 들어가서 늘 되뇌라고 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꼭 공직만이 아니다. 우리 생이 그렇다. 생을 통해 이를 것이 무엇인지, 내게 부여된 뜻이 무엇인지 그 좌표를 가슴 속에 품지 않는 인생은 도중에 길을 잃기 쉽다.

기윤실 : 대표님의 들끓음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송인수 : 들끓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 할까? (잠시 생각하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는 질문과 연결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지만 실천적 의미가 약하다. 일상의 언어로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 고통에 응답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한계가 있어 모든 고통에 응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고통에 응답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내가 서 있는 자리, 삶의 영역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한 실패의 경험도 좋다. 그런 경험은 대개 고통과 좌절을 불러온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실패 속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로 세워진다. 그 부르심에 대항하는 위치로 나가는 순간, 들끓



음이 시작된다. 나에게 그 시작이 1992년이였다. 학교 내에 불법 문제와 싸우다 좌절하고 신앙도, 교사로서의 자존감도 바닥을 칠 때였다.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응답했고 기윤실교사모임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기윤실 : 시간이 지나서 건조하게 되돌아볼 수 있지만, 당시 고민이 굉장히 컸을 것 같다. 어떻게 확신했나?

송인수 : 학교 안에 비윤리적 관행을 바로잡고 수업 준비를 열심히 했다.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그 길로는 교실 바깥 학교와 교육계 전체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다. 교육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했고, 그런 자리로 옮겨야 했다.

2002년 기독교사대회 준비 대표자들 모임에서 박상진 교수(장신대)가 설교를 했다. 그는 문득 “하나님은 달걀 프라이보다 통닭 바베큐를 원한다”는 예화를 들었다. 하나님은 이 운동을 위해 자기 일부가 아닌 전체를 드리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말을 하며 인용한 이야기다. 다들 재밌는 예화에 웃는데, 나는 울고 말았다. 그걸 부르심으로 들은 거다. (이 말을 하며 송인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부르심의 기억을 잊을 수 없어 보였다.) 저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불안감이 사라졌다. 교직을 내려놓은 것에 밀도 끝도 없이 불안해서 남들에게 위로용 조언을 구하곤 했는데, 비로소 안정감이 찾아오며 더 이상 조언을 기대지 않고 교직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되었다.

기윤실 : 불안감이 사라지자,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설득을 하게 됐다는 점이 인상 깊다.

송인수 : 그렇게 폴타임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다. 들끓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솔직히 늘 뜨거울 수가 없다. 데이터와 싸우고 디테일을 챙기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학교를 떠났으니 지켜야 할 아이들은 멀리 있고, 아이들의 고통을 데이터를 통해 넘겨짚을 수밖에 없다.

교사일 때는 한 번도 아이들의 고통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늘 옆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퇴직하고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을 하다 보니 아이들의 고통이 직접 느껴지지 않아 힘겨웠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아이들의 고통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아팠다.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목소리도 살짝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상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또 넘어가는 거다. 때로 들끓을 수 있고, 덜 들끓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덜 들끓는다고 멈추거나, 들끓는다고 해서 질주하는 것이 아니다.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을 곳에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기윤실 : 들끓는다는 것이 펄펄 끓는 냄비가 아니라 지글지글 끓어가는 가마솥의 뜨거움 같다.

송인수 : 많이 노쇠해졌고 힘겨움이 많았다. 하지만 저를 일관되게 움직여온 정체성은 기독교사다. 이제는 교사보다 시민운동가로 산 시간이 더 많지만 스스로 기독교사, 예수를 따르는 선생, 아이들을 위해 학교 밖에서 싸우는 선생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사람들이 성공보다 행복을 원한다. 중요한 변화다. 그런데 나는 다른 생각이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교사로 살 때가 내 인생의 절정이었다. 교사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행복감'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실제 돌아가라고 한다면 안 갈 거다. 그때 나는 행복했지만,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내 행복이 중요한가? 아이들의 고통이 중요한가? 세상에 고통에 응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배웠는데 내 행복에 머무를 수 없어 여기까지 온 것이다.

고통에 응답하는 삶을 살면 어려움도 생기지만, 그 삶도 말할 수 없이 빛나는 삶이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복이다. 타자의 고통에 응답하는 삶이 주는 보람과 만족감도 풍요로운 복이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감정을 많이 누리면 좋겠다.

기윤실 :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가 대표님 인생의 내규 같다.

송인수 :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겠다. 내 속에 들끓는 과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네가 해보라는 뜻이 주어질 수 있다. 그 순간 사람은 담대해진다. 과제와 내 한계의 간격은 그 과제에 나를 이동하는 순간, 성령께서 매워주신다. 큰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 나를 던져버리니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들과 자주 사소한 싸움을 한다. 30년 전엔 좋아하던 클래식 테이프를 다 버렸다. 퇴직할 땐 커피를 끊었다. 요즘은 설탕과 싸우고 있다. (웃음)

기윤실 : 갈수록 굳어지기 없는 팍 찬 삶을 사는 것 같다.

송인수 : 스마트폰도 방해되더라. 2010년 무렵 1년 정도 썼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 2G폰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독서하고, 메모를 하고 글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출퇴근하는 2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불편하지만 기윤실 정신이 남아 있으니까 하는 것 같다.

기윤실 : 들끓는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언한다면?

송인수 : 들끓음을 찾는 것 그 자체는 공허하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자연히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도처에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있는데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어떤 아픔에 응답하고 직면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실패해도 좋다.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개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수 제자로서 세상의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 들끓음의 시작이다. **기윤실**

인터뷰 정리_ 박제민 팀장

그날 저녁, 송인수에게 문자가 왔다. 별 것 아닌 인생을 인터뷰 해줘서 고맙다고. 그의 뜨거움을 느끼고 눈물을 본 사람으로 서로 동의하기 어렵다. 세상에 고통에 맞서 들끓는 삶을 살고 있는 송인수는 참으로 별 것인 인생을 살고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재밌는 불편, 자발적 참여!

자발적불편 워크숍

공기청정기 만들기

글. 박제민 팀장



‘자발적불편’이란 말을 들으면 불편하시죠? 자발적불편운동이 실천적인 신앙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십니다. 뜻은 좋지만 실천하기에는 멀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자발적불편이 꼭 불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조금씩 불편하지만 양보하면 더 즐겁고 편리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불편운동을 어떻게 즐겁고 재밌게 전달하는 것이 저희가 가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자발적불편의 가치를 담은 재밌는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지난 5월 20일(월) 오후 7시, 기운실에서 열렸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는 자발적불편 캠페인은 2019년 봄을 맞아 ‘미세먼지에 맞서는 그리스도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자발적불편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집안도 집밖도 맑게 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십년후연구소 조윤석 소장님이 해주셨습니다. 먼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오신게 인상적이었죠. 십년후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입니다. 2005년 개설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실내온도를 낮춰서 냉방기 사용을 줄이

기 위해 지붕에 하얀 페인트를 칠하는 쿨루프 캠페인이 있고요. 요즘에는 미세먼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윤석 소장님이 해주신 강의는 말 그대로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를 넘어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리아 내전은 UN이 기후변화로 일어난 전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로 수많은 난민이 생겨나고 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에 따라 공기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미세먼지 문제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구요.

강의 후에는 공기청정기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기청정기는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돌리기 위해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그 전기를 감당하기 위해 발전을 하고, 그래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요. 십년후연구소가 만든 ‘은하수 공기청정기’는 조그만 팬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필터를 이용해 최소한의 전기로 일부분의 공간을 넉넉히 정화할 수 있습니다. 적정기술과 가성비 조화랄까요? 참가하신 분들도 매우 만족해하셨는데요. 남겨주신 후기를 전하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 ✧ 일회용품은 적게 사용해서 좋았고, 미세먼지에 대해 몰랐던 부분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어요!
- ✧ 정말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과 난민, 자본주의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환경문제 희생이 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 ✧ 강의도 듣고 공기청정기도 만들고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유산 남기기

글. 손봉호(기윤실 자문위원장, 고신대 석좌교수)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방정환 선생은 당시에 어린이들이 너무 천대받는 것을 보고 어린이날 제정을 추진하였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그런데 과거의 어린이들보다 오늘날 노부모들이 더 천대를 받으므로 이제는 어린이날보다 오히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생산성, 효율성이 절대적 가치로 등장한 오늘날 노인들을 천대할 핑계는 무수하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면서 징그럽게 오래 살아 밥만 죽이고, 병은 지지리도 많아서 막대한 건강보험금을 축내지 않는가. 거지 신세 면해보고 자식 놈들 공부시킨다고 뼈 빠지게 일했지만, 노후대책은 세우지 않아 노령연금으로 세금을 갚아먹고, 쓸데없이 차를 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나 내지 않는가. 호도 제대로 한 마지막 세대인데 호도 못 받는 첫 세대, 어른을 존중한 마지막 세대인데 존중 못 받는 첫 세대라고 푸념하면서 “너 늙어 봤어!”라고 항의해 봤자, “누가 늙으래?”라는 메아리만 돌아온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Unsplash.

그러니까 대우받고 존경받으려 바둥거리지 말고 곱게 늙으려고 애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도 자존심을 살리고 품위 있게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All's well that ends well). 평생 배우고 터득한 지혜로 그나마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총동원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쓰고 가야한다.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언제,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굶고 병든 고아에게 준 만원은 10만 원이 되지만, 잘 사는 자식에게 준 만원은 10원 가치도 없다.

“ 돈을 모아 자손에게 넘겨준다 하더라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킬 수 없고, 책을 모아 자손에게 넘긴다 하더라도 자손이 반드시 다 읽을 수 없다. 남모르는 가운데 덕을 쌓아서 자손의 계좌에 넣는 것만 못하다”(積金以遺子孫, 未必子孫 能盡守. 積書以遺子孫, 未必子孫 能盡讀. 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 以爲子孫之計也).

명심보감 제1편(계선편) 중

명심보감(明心寶鑑)에 인용된 사마온공(司馬溫公)의 명언이다. 성경말씀은 아니지만 세상을 달관한 지혜다. 새겨들을 가치가 있다.

자손에게 재산을 남기고 자식들 교육시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 굶고 무식한 사람이 우글거리면, 부자도 식자도 행복할 수 없다.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알아서 우쭐거리는 것은 잠시의 행복일 뿐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많은 재산을 남기기보다는 자손들의 존경, 신임,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자녀 사랑이며, 남모르게 덕을 쌓아서 결과적으로 자손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유산이다.

1984년에 한경직 목사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고 본인(손봉호 집사)의 성경강의를 들은 기독교실업인 몇 분이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시작했다. 적어도 유산의 2/3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과 매년 유언장을 쓴다는 것을 약속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짐이 된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조직도 없고 회원 명단도 공개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천여 명이 가입했고 작고한 회원들은 거의 다 그 약속을 지킨 것으로 알려지거나 추측된다. 그동안 자녀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나 유산의 기부 때문에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없다.

유산 기부의 장점은 여러 가지다. 우선 자녀들이 부모의 유산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성과 책임감이 강해진다.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녀가 유산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삶을 영위한다는 사실에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게 된다. 부모의 과보호는 “마마보이”들을 양산하며 부모의 많은 재산 때문에 형제자매가 서로 다투는 추한 모습이 속출한다. 그리고 돌아보면 부모의 유산을 많이 받은 자녀보다 자수성가한 자녀들이 부모를 더 존중하고 받드는 것 같다. 유산을 남기지 않으므로 오히려 효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자녀의 소득과 성취는 부모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뤄졌을 때 떳떳하고 정의롭다. 인생의 출발점이 유리하면 승리해도 부끄럽다. 불리하게 출발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도 받을 수 없다. 큰 재물의 상속은 정의를 파괴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질투와 불만을 야기하여 사회 평화와 협력을 방해한다. 그런 사회에서 특혜를 누리는 것은 본인에게도 불안하고 위험하다. 그러므로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됨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이 안전하고 조화로운 세상에 살도록 돕는 길이 된다.



©Unsplash.

과거에는 사람의 삶이 주로 자연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나 지금은 다른 사람과 사회에 의하여 주로 결정된다. 나의 능력과 재산도 내가 홀로 만든 것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국가가 만든 도로와 제도와 환경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성취한 것이다. 따라서 나의 모든 성취에는 다른 사람, 사회 전체의 공헌이 듬뿍 들어 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고백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 성취의 상당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gratuitous) 시혜가 아니라 일종의 의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 환원한 재산은 자손에게 물려준 유산보다 더 큰 가치를 생산한다. 배부른 손녀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 줄 돈으로 굶는 고아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그 효용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우리의 재산은 노동의 대가요, 노동은 삶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우리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 자손을 굶게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굶는 고아를 옆에 두고 배부른 자녀에게 사치를 제공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음이 된다.

어버이날에는 어른들이 존경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존경 받을 자격을 갖추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1월**

<좋은나무> 구독신청

교회와 사회의 현안에 대한 신선한 관점, 건강한 생각을 제공하는 <좋은나무>를 구독해주세요.
<좋은나무>의 글은 이메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나무>페이지 <https://cemk.org/goodtree/>

<좋은나무>소개 <https://cemk.org/8880/>

<좋은나무>구독신청 <http://bit.ly/좋은나무구독신청>

자체휴강프로젝트 오픈배움터
 <나를 찾는 토요일 #03>
 “마음아 안녕 : 들여다봄, 돌봄”

글. 김현아 팀장

세 번째 나를 찾는 토요일이 열렸습니다! 3회차 주제는 '마음건강'이었습니다. 가족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 직면하는 순간에 다치고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에 집중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마음건강과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이 역시나 많았을 겁니다. 이 날 스물 한명의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알고, 마음에 여유 공간을 만들고 싶다”, “연인과 건강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알고 싶다”, “힘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고민과 기대를 가지고 온 참가자들에게 정신실 소장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 열 개 정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나는 만아들이다”,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자연과 음악을 좋아한다.”, “나는 선교단체 간사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등 다양한 나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다른 나에 대해서 말하고 들었습니다.



타인을 돌아보면서 약간의 성찰과 통찰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위태로움을 겪는 청년들을 만났을 때, 탓하거나 재촉하거나 훈수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 스스로는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의 상한 마음과 흔들림에 공감하며,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는 과정을 지지합니다. 조금 더 안녕한 청년의 시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기운실 청년운동본부는 살피고 돕겠습니다. 길잡이로 함께 해주신 정신실 소장님과 용기 내어 모임에 함께 해주신 청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는 타인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나의 장점들을 생각해보고 나누기도 하고, ‘애니어그램’을 통해 내가 가진 선물과 애물에 대해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 날의 강의로 청년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하거나 답을 찾지는 못했을 테지만, 자신과

평신도의 상상력만큼 한국교회가 바뀐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평신도의 상상력> 첫 번째 이야기 후기

글 박제민 팀장

“평신도의 상상력, 어때요?” 평신도의, 평신도를 위한, 평신도에 의한 모임을 기획하면서 나온 이름입니다. 평신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늘날 교회는 손꼽히게 욕먹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 모임과 이름은 그런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평신도의 상상력> 첫 번째 이야기, “욕먹는 기독교와 평신도의 고민”이 2019년 4월 20일(토) 오후 2시, 서울 서교동 창비학당에서 열렸습니다.

주제 발제는 기독교법률가회 사무국장이 이병주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이병주 변호사는 평신도들이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씨름하는 신앙을 갖자고 했습니다. 개인의 거룩함과 경건생활만 강조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 여러 일들과 부딪히며 신앙을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생업의 현장이 더 치열한 신앙생활의 장이니 열등감을 갖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자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별 교회를 넘어서는 평신도 신앙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모임을 주최한 평신도 단체의 회원들이 토론에 나섰습니다. 기윤실 교회 신뢰본부장인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평신도를 자꾸 미흡한 존재로 보는데, 반대로 목사에게 왜 세상 속으로 쫓아오지 못하느냐고 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교인이 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경영연구원 부원장인 김세중 교수(아주대)는 미국의 세이버 교회 사례를 들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야구에 비유하면 1루, 2루, 3루를 돌아서 다시 홈으로 오지 말고, 3루까지 갔으면 세상을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회원인 강영희 교사는 세월호 참사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무작정 피켓 시위에 나섰다 했습니다. 꾸준히 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교회를 욕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기독교법률가회 회원인 조원익 변호사는 법

을 공부하며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법도 만들고 체계도 만드는 롤 메이커였지만 이제는 교회부터 법을 지키고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발제와 패널토론이 끝난 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개 모둠을 만들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색이 평신도들의 모임인데, 기존의 교회 모임처럼 앞에 나온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만 듣고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곳곳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고, 때로는 심각한 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가슴 속 깊은 분노를 쏟아내기도 해서 위로를 하기도 했고 그러다보니 말이 길어져서 다음 사람을 위해 말을 맺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런 모습을 보면 자연스레, 평신도의 상상력이란 주제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상상하는 만큼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평신도의 상상력은 몇 번만 하고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평신도의 상상력 두 번째 이야기는 2019년 6월 22일(토) 오후 2시, 같은 장소인 창비학당에서 열립니다. 송인규 교수(한국교회탐구센터)가 짧게 발제하고 오신 분들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평신도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진실**



특별후원요청 보고

“소중한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배중석, 정병오, 정현구입니다. 따사롭고 초록 생명이 돌아오는 때에, 주님의 귀한 생명의 은총이 있기를 빕니다.

기윤실은 지난 4월 5일(금)부터 5월 5일(일)까지 진행해왔던 특별모금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별후원요청 기간 동안 신규 후원자로 46명, 그리고 증액 후원자로 67명이 기윤실 운동에 함께해주셨습니다. 또한 2019년 부족했던 사업 예산의 35% 가까운 후원금(월정 16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분 한분의 참여를 통해, 기윤실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기윤실은 회원님의 고견과 기도, 그리고 동참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기윤실을 향해서 말씀해주시고 참여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윤실 사역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회원님께서 지지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단체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신뢰받는 교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기윤실 운동을 위해 탁월한 사업과 운동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5월 5일 기준)

후원 종류	기대 인원	후원 인원	월 후원 금액
신규 회원	100 명	46명(46%)	830,000원
증액 회원	100 명	67명(67%)	772,000원
총 계	200 명	113명(56%)	1,602,000원(32%)

새로 후원자로 가입하신 회원분이 여러 응원의 문구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개의 문구를 소개합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에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교람대오의 정신을 끝까지 놓지 않는 기윤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후원에 작게나마 동참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기윤실의 활동은 지켜봐왔습니다. 한결 같이 묵묵히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윤실의 운동을 응원합니다.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자비와 의를 실천하는 귀한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작은 불꽃이고 싶습니다~!

기윤실의 활동을 늘 응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옳은 길을 가도록 힘써주세요.

‘목회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교육’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세미나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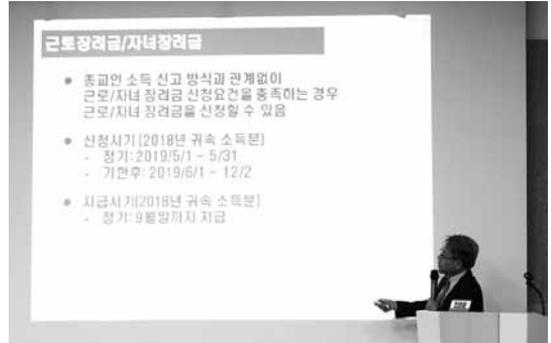
글_ 조희준 간사

2019년 상반기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육이 ‘목회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교육 강연회 및 개별상담’이라는 주제로 5월 8일(수)~9일(목) 양일간 서울(열매나눔재단 나눔홀), 부산(부산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 세법에 따라, 교회가 연말정산 신고를 안 한 경우 목회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목회자들을 위해 흠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교육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한빛누리의 황병구 본부장이 부산에서는 부산 기윤실의 가정호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두 사회자는 종교인 과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종합소득세 교육에 참여한 목회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 큰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는 흠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인소득세 관련 규정 특징과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의 차이점을 두 번째로 근로소득, 종교인(기타)소득, 복수소득의 흠



택스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도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30분가량 종합소득세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하신 목회자님들께서 각자 궁금했던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들에 최호윤 회계사는 깊이 있게 답변을 해주었고, 목회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목회자분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교육에서 들었던 설명대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가셨습니다.

종교인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여전히 종교인과세 문제에 대해 목회자분들께서 모르는 부분이 많으며, 어려워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회자분들께서 세금 납부 방법을 올바르게 아시고 실천 하셔서 한국 교회가 돈 문제로 신뢰를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

‘목회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교육’ 자료집 다운로드 안내 : www.webhard.co.kr 접속 → ID : ngo114, PW : cfan 로그인 → ‘종합소득신고 201905.pdf’ 파일 다운로드

회계보고 | 운영성과표 2019 0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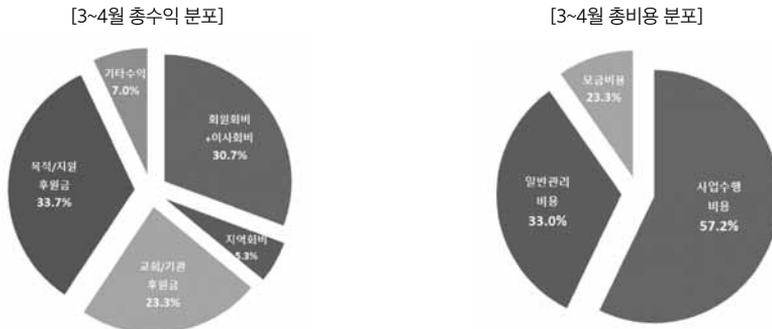
기간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과목	공익목적사업
I. 사업수익	46,852,754
① 회비수익(회원회비/이사회비/지역회비)	21,895,000
② 일반기부금수입(교회/기관후원금)	15,860,000
③ 특정기부금수익(목적후원금/지원후원금)	5,650,000
④ 기타수익(사업후원금/등록비/자료판매비/이자수익)	3,447,754
II. 사업비용	56,017,715
① 사업수행비용(사업인건비, 운동본부/자치기구/협력운동 사업비 등)	31,206,514
② 일반관리비용(행정인건비, 사무관리비, 사무처운영비 등)	14,920,326
③ 모금비용(회원관리비, 소식지제작비, 지역회비전달금 등)	9,890,875
III. 사업이익	- 9,164,961
IV. 사업외수익	777,520
① 노동부지원금	776,120
② 잡이익	1,400
V. 사업외비용	- 0
① 유형자산폐기손실	- 0
② 잡손실	- 0
V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0
V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0
수익 총계	47,630,274
비용 총계	56,017,715
당기 순자산의 증(감)	- 8,387,441

*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순자산은 8,387,441원 감소했습니다.

* 2019년 4월 30일 현재 잉여금은 61,624,813원입니다.

* 수익-비용 분포 그래프



비용 분류 주석

1. 사업수행비용은 법인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 일반관리비용은 인사, 재무, 감독, 관리 등의 제반 비용입니다.
3. 모금비용은 회원정보관리 및 서비스 소식지, 홍보행사 등 기부금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019년 03~04월
후원자명단



2019년 03~04월 후원자명단

3월

개인 후원금 (539명 / 8,538,000원)

(1천) 장서은 장윤희 (2천) 권용태 기용서 오동춘 (3천) 김은이 남영란 명호중 서동진 손은순 신희선 원종민 정영미 (5천) 강동우 강민봉 강철원 강현주 박종철 권오재 김경숙 김경호 김규석 김근원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미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선희 김용미 김인숙 김재균 김정현 김정훈 김주현 김준철 김태훈 김학빈 김하나 김혜경 김홍환 김홍식 김희숙 김희정 나영식 남준일 노광섭 노대용 노승아 류중우 문경환 문덕암 박경희 박상돈 박서현 박선이 박은지 박정민 박택규 박환승 배재수 백인남 백지열 법학식 서유미 서효정 성우경 손영일 손현화 송시섭 송종영 송철학 신수현 안지현 엄현식 오창섭 유창수 유혜영 유희경 윤성우 윤신일 윤혜균 이국운 이금아 이기웅 이동혁 이만동 이상철 이선화 이영광 이용아 이은성 이재현 이정은 이종숙 이태희 이하정 이희재 이희열 임영제 장준혁 장창수 정경애 정선우 정왕효 조인형 조천권 지연심 최경호 최경석 최영애 최승권 최인영 최종원 최진호 추현우 하현주 한기재 한석환 한유식 한창희 홍선희 홍일선 홍택주 황병일 황선영 (7천) 신병호 유영신 (1만) 강명길 강승우 강승철 강윤주 강은경 강은정 강일구 강정규 강종윤 강진호 강호인 강홍구 강희철 고승표 고정순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공헌 권명희 권순홍 권아현 기세중 김광환 김대인 김동준 김두희 김명희 김말순 김문수 김병일 김상범 김상정 김상한 김성천 김성태 김수희 김연기 김영모 김영봉 김영식 김영철 김요열 김윤서 김윤수 김윤진 김은수 김은영 김재환 김정미 김정백 김종호 김준영 김진규 김철성 김태식 김학동 김현태 김형신 김형중 김혜경 김홍주 김효진 남궁설 남제현 노경오 도낙주 류선민 류성희 문규 문석윤 문정옥 문현주 민영운 박경순 박경준 박기출 박민선 박복애 박상옥 박상호 박수경 박수정 박영민 박윤정 박의진 박재장 박정민 박종구 박주현 박지연 박진옥 박철원 박태영 박혜윤 박홍태 방형애 배기홍 배복희 배정호 배진화 백은희 백현주 변현중 변희중 서동천 서일향 설성호 성상현 손상문 손용기 손은정 손정아 손현성 송미옥 송병문 송준인 송태현 신대희 신승혁 신은심 신은정 신전수 신창조 심윤아 안보경 안선옥 안선화 안연희 안정은 안학서 양민우 양영두 양지혜 오동근 오미영 오상덕 오세란 오은석 오진선 옥성일 원영대 위국명 유건호 유동원 유영준 유원옥 유정윤 유정인 윤두선 윤민영 윤양숙 윤태호 이경진 이경천 이근무 이금성 이기선 이덕환 이상규 이석형 이선희 이성진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수호 이슬이 이용은 이용훈 이용섭 이윤영 이월숙 이은현 이의현 이인영 이재문 이재민 이재운 이정민 이주환 이지행 이진주 이진화 이종학 이현숙 이현호 이형조 임미정 임소철 임일택 임종록 임종화 임태규 장규선 장기화 장미혜 장영상 장옥선 장혜경 전종갑 정국태 정규장 정동혁 정명숙 정명태 정명환 정원희 정유선 정유진 정윤호 정일용 정재훈 정호연 정화선 정화조 조부성 조병진 조용환 조정미 조태래 조희준 주민선 주상희 주선경 지상섭 지상섭 진미자 천무현 천선희 최경화 최동우 최병성 최상태 최성수 최성숙 최우석 최용 최정철 최정희 최지혜 최현지 추진근 태원우 하경열 하만중 하용성 한규환 한상호 한성준 한신영 한이수 한재량 한지연 한형열 허남 허성연 허순자 허효일 홍인기 홍정진 황병구 황성걸 (1만2천) 윤영식 (1만5천) 강병관 김상인 김태환 박봉순 배정주 오성만 윤영관 정성진 정세열 (2만) 고은정 구에리 금은미 김경미 김동조 김명찬 김민숙 김세진 김신근 김영아 김인선 김정옥 김정원 김종필 김진표 김홍섭 나중주 남재환 도종수 박경라 박득훈 박명배 박성명 박은미 박종원 박진희 박판근 백경호 서임선 손화철 송성현 송인수 신국원 신영현 안병직 안은상 양낙훈 윤상원 원원희 이만열 이명자 이병환 이세령 이수정 이승준 이원애 이윤정 이윤현 임지웅 장민규 정중목 정혜자 조성돈 조현영 차정아 최삼옥 최영석 최윤선 한병선 홍인중 (2만5천) 박세진 (3만) 강석창 강영안 김경천 김선옥 김영철 나영진 박선영 박재한 박철 서한홍 손기식 손병철 손진호 송명숙 송성훈 송택호 엄용환 유성오 유재균 윤영석 윤혁정 이동철 이원준 이장규 이준복 임성민 정민경 정철성 정현철 최혜원 홍대식 (3만5천) 박세진 (4만) 차연주 (5만) 권광현 권장희 김경래 김미숙 김용근 류대영 류인복 목광수 박종윤 박종진 박찬기 송연자 신은정 유혜신 이상근 이원근 이원우 이인택 이철진 이희석 정문희 최광사 홍홍호 (5만5천) 조홍식 (7만) 성영은 최병제 (10만) 김일수 박원주 박재우 박호용 배중석 석종호 우창록 이상민 이의용 정병오 조현덕 재홍석 현상원 (13만) 조현호 (15만) 손봉호

4월

개인 후원금 (554명 / 10,082,000원)

(1천) 장서은 장윤희 (2천) 권용태 기용서 오동춘 (3천) 김민섭 김은이 남영란 명호중 서동진 손은순 신희선 원종민 정영미 (5천) 강민봉 강철원 강현주 박종철 권오재 김경숙 김경호 김규석 김근원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미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선희 김용미 김인숙 김재균 김정현 김정훈 김주현 김준철 김태훈 김학빈 김하나 김혜경 김홍환 김홍식 김희숙 김희정 나영식 남준일 노광섭 노대용 노승아 문경환 문덕암 박경희 박상돈 박서현 박선이 박은지 박정민 박환승 배재수 백인남 백지열 법학식 서유미 서효정 성우경 손영일 손현화 송시섭 송종영 송철학 신수현 안지현 엄현식 오창섭 유창수 유혜영 유희경 윤성우 윤신일 윤혜균 이국운 이금아 이기웅 이동혁 이만동 이상철 이선화 이영광 이용아 이은성 이재현 이정은 이종숙 이태희 이하정 이희재 이희열 임영제 장준혁 장창수 정경애 정선우 정왕효 조인형 조천권 지연심 최경호 최경석 최영애 최승권 최인영 최종원 최진호 추현우 하현주 한기재 한석환 한유식 한창희 홍선희 홍일선 홍택주 황병일 황선영 (7천) 신병호 유영신 (1만) 강명길 강승우 강승철 강윤주 강은경 강은정 강일구 강정규 강종윤 강진호 강호인 강홍구 강희철 고승표 고정순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공헌 권명희 권순홍 권아현 기세중 김광환 김대인 김동준 김두희 김명희 김말순 김문수 김병일 김상범 김상정 김상한 김성천 김성태 김수희 김연기 김영모 김영봉 김영식 김영철 김요열 김윤서 김윤수 김윤진 김은수 김은영 김재환 김정미 김정백 김종호 김준영 김진규 김철성 김태식 김학동 김현태 김형신 김형중 김혜경 김홍주 김효진 남궁설 남제현 노경오 도낙주 류선민 류성희 문규 문석윤 문정옥 문현주 민영운 박경순 박경준 박기출 박민선 박복애 박상옥 박상호 박수경 박수정 박영민 박윤정 박의진 박재장 박정민 박종구 박주현 박지연 박진옥 박철원 박태영 박혜윤 박홍태 방형애 배기홍 배복희 배정호 배진화 백은희 백현주 변현중 변희중 서동천 서일향 설성호 성상현 손상문 손용기 손은정 손정아 손현성 송미옥 송병문 송준인 송태현 신대희 신승혁 신은심 신은정 신전수 신창조 심윤아 안보경 안선옥 안선화 안연희 안정은 안학서 양민우 양영두 양지혜 오동근 오미영 오상덕 오세란 오은석 오진선 옥성일 원영대 위국명 유건호 유동원 유영준 유원옥 유정윤 유정인 윤두선 윤민영 윤양숙 윤태호 이경진 이경천 이근무 이금성 이기선 이덕환 이상규 이석형 이선희 이성진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수호 이슬이 이용은 이용훈 이용섭 이윤영 이월숙 이은현 이의현 이인영 이재문 이재민 이재운 이정민 이주환 이지행 이진주 이진화 이종학 이현숙 이현호 이형조 임미정 임소철 임일택 임종록 임종화 임태규 장규선 장기화 장미혜 장영상 장옥선 장혜경 전종갑 정국태 정규장 정동혁 정명숙 정명태 정명환 정원희 정유선 정유진 정윤호 정일용 정재훈 정호연 정화선 정화조 조부성 조병진 조용환 조정미 조태래 조희준 주민선 주상희 주선경 지상섭 지상섭 진미자 천무현 천선희 최경화 최동우 최병성 최상태 최성수 최성숙 최우석 최용 최정철 최정희 최지혜 최현지 추진근 태원우 하경열 하만중 하용성 한규환 한상호 한성준 한신영 한이수 한재량 한지연 한형열 허남 허성연 허순자 허효일 홍인기 홍정진 황병구 황성걸 (1만2천) 윤영식 (1만5천) 강병관 김상인 김태환 박봉순 배정주 오성만 윤영관 정성진 정세열 (2만) 고은정 구에리 금은미 김경미 김동조 김명찬 김민숙 김세진 김신근 김영아 김인선 김정옥 김정원 김종필 김진표 김홍섭 나중주 남재환 도종수 박경라 박득훈 박명배 박성명 박은미 박종원 박진희 박판근 백경호 서임선 손화철 송성현 송인수 신국원 신영현 안병직 안은상 양낙훈 윤상원 원원희 이만열 이명자 이병환 이세령 이수정 이승준 이원애 이윤정 이윤현 임지웅 장민규 정중목 정혜자 조성돈 조현영 차정아 최삼옥 최영석 최윤선 한병선 홍인중 (2만5천) 박세진 (3만) 강석창 강영안 김경천 김선옥 김영철 나영진 박선영 박재한 박철 서한홍 손기식 손병철 손진호 송명숙 송성훈 송택호 엄용환 유성오 유재균 윤영석 윤혁정 이동철 이원준 이장규 이준복 임성민 정민경 정철성 정현철 최혜원 홍대식 (3만5천) 박세진 (4만) 차연주 (5만) 권광현 권장희 김경래 김미숙 김용근 류대영 류인복 목광수 박종윤 박종진 박찬기 송연자 신은정 유혜신 이상근 이원근 이원우 이인택 이철진 이희석 정문희 최광사 홍홍호 (5만5천) 조홍식 (7만) 성영은 최병제 (10만) 김일수 박원주 박재우 박호용 배중석 석종호 우창록 이상민 이의용 정병오 조현덕 재홍석 현상원 (13만) 조현호 (15만) 손봉호

엄현식 오창섭 유창주 유혜영 유희경 윤성우 윤신일 윤혜균 이국운 이금아 이기웅 이동혁 이만동 이상철 이선화 이윤아 이은성 이재현 이정은 이종숙 이태희 이하정 이혁재 이희열 임영제 장준혁 장창수 정경애 정선우 정성진 정왕효 조인형 조천권 지상섭 지연심 최경구 최경석 최영애 최용권 최인영 최중원 최진호 추현우 하현주 한기재 한석환 한유식 한창희 홍선희 홍택주 황병일 황선영 (7천) 신명호 유영신 (1만) 강명길 강승우 강승철 강윤주 강은경 강은정 강일구 강정규 강종윤 강진호 강호인 강홍구 강희철 고승표 고정순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공현 권명희 권순홍 권아현 금은미 기세충 김광환 김대인 김동준 김두희 김명희 김만옥 김말순 김문수 김병일 김상범 김상정 김상환 김성진 김성태 김수희 김연기 김영모 김영봉 김영식 김영철 김요열 김윤서 김윤수 김윤진 김은수 김은영 김재환 김정미 김정백 김중호 김준영 김철성 김태식 김현태 김형신 김형중 김형택 김혜경 김희진 나희량 남규설 남제현 도나주 류선민 류성희 류종우 문규 문석윤 문정옥 문현주 민영운 박경순 박경춘 박기출 박민선 박복애 박상호 박상홍 박성근 박수경 박수정 박영민 박윤정 박의진 박재장 박정임 박제민 박주현 박지연 박진욱 박진희 박철원 박태영 박혜윤 박홍대 배기홍 배복희 배정호 배진화 백은희 백현주 변현정 변희중 서동천 서일향 설성호 성상현 손용기 손은정 손현성 송미옥 송병문 송준인 송태현 신대희 신승훈 신은심 신은정 신진수 신창조 심윤아 안보경 안선옥 안선화 안은상 안정은 안하서 양민우 양영두 양지혜 오동근 오미영 오상덕 오세란 오은석 오진선 옥성일 우현기 원영대 유건호 유동원 유영업 유영준 유원욱 유정윤 유정인 유혜원 윤두선 윤민영 윤양숙 윤태호 이경진 이경천 이근무 이금성 이기선 이덕한 이상규 이석형 이성진 이수정 이수진 이수호 이수이 이예성 이용은 이용훈 이용훈 이운섭 이원영 이원숙 이의현 이재민 이재운 이정민 이주환 이지행 이진수 이천화 이충학 이현숙 이현호 이형조 임미정 임소희 임일택 임종록 임종화 임태구 장규선 장기화 장미혜 장영삼 장옥선 장혜경 전장덕 전종갑 정규장 정동혁 정명숙 정명혜 정명환 정원 정유선 정유진 정윤호 정일용 정재호 정호연 정화선 조무성 조병진 조용환 조정미 조준호 조태레 조희준 주민선 주선경 지삼영 지상섭 진미자 천부원 천선희 최경화 최동우 최병성 최상태 최성수 최성숙 최우석 최윤 최정철 최정희 최지혜 최창명 최현지 추진연 태원우 하경열 하만중 하용정 한규완 한상호 한신영 한이수 한재학 한지연 한형열 허남 허성연 허순자 허효일 홍인기 홍정진 황병구 황성결 (1만2천) 윤영식 (1만5천) 강병관 김병찬 김상인 김태현 박봉순 배정주 오성만 윤영관 정세열 (2만) 고은정 광상배 구예리 김경미 김동조 김민숙 김세진 김신근 김영아 김예운 김은유 김인선 김경옥 김정원 김종필 김진표 김홍섭 나중주 남재환 도중수 박경라 박득훈 박명배 박성령 박은미 박은하 박종원 박판근 백경호 서임선 송성현 송인수 송형록 신국원 신영현 안연희 양낙홍 온상원 유지은 이만열 이명자 이병환 이세령 이수경 이원애 이윤정 이윤현 이종규 임지용 장민구 정규환 정중복 정혜자 조성돈 조승희 조우철 조현영 차연주 차정아 천수연 최삼욱 최영석 최윤선 한병선 한진영 홍인중 (2만5천) 박세진 (2만6천) 김은영 (3만) 강석창 강영단 김경진 김범이 김신욱 김영철 나영진 박선영 박재한 박철 서한홍 손기식 손병철 손진호 송명숙 송성훈 송택호 엄용환 유성우 유재근 윤영석 윤혁경 이원준 이장규 이준복 임성민 정민경 정철성 정현철 최혜원 한성준 홍대식 홍종락 황영실 (4만) 박병근 박종명 이종실 홍관수 (5만) 강석범 광창대 권장희 김경태 김미숙 김용근 김충환 목광수 박중운 박중진 박찬기 백종국 송연자 신은정 유혜신 이성근 이원근 이원우 이의영 이인택 이철진 이희서 정문희 정병오 최광사 최병제 (5만5천) 조홍식 (7만) 류인복 (10만) 김민철 김인빈 김일수 문시영 박원주 박호용 배종석 석중호 우창록 이상민 조현덕 채홍석 현삼원 (12만) 손화철 (13만) 조현호 (40만) 박계우 (55만) 손봉호

후원 기관 및 교회 (65곳)

(주)마인 (주)소프트이천 (주)나 100주년기념교회 가음성교회 경주교회 과천교회 관악교회 교회개혁행신도행동연대 공산교회 남군산교회 남대문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니엘새시대교회 대림교회 대주산업 대한기독교간사협회 동부광성교회 동안교회 마산재건교회 망미제일교회 목민교회 목산침례교회 별무리교회 보성글로벌(주) 부천평안교회 분당샘물교회 분당소망교회 분당우리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세사랑교회 서문장로교회 서울광영교회 서울모자이크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여대대학교교회 서울영동교회 서울영동교회권사회 서울일본인교회 서진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소망교회 소망글로벌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안동교회 언약교회 예인법률사무소 오륜교회 우리들교회 은혜샘물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일원동교회 잠실중앙교회 좋은나무교회 주날개그늘교회 주뜻새들녘교회 주안복지재단 중앙대학교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지비전인터내셔널 청량교회 청운교회 침산동부교회 향성교회

신규/재개회원 | 기윤실 운동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5명) 강종윤 권광현 류대영 이성근 조현덕 4월(9명) 강석범 광창대 김만옥 나희량 이의영 조승희 천수연 홍종락 한진영

후원과 기도로 동역해주시는 회원님,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의 후원자명단을 영수증을 대신하여 신습니다. CMS후원의 경우 전월 미출금 된 금액이 차월에 함께 출금(최대 3개월)되기 때문에 월별 후원금이 회원님께서 약정하신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기윤실 회원님께서서는 각 지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현아 팀장 070-7019-3756, khash8501@nate.com

- 04/03(수) 18:00 찾아가는 자발적불편 예배(광운대학교 한울관)
- 04/04(목) 19:00 교회세습반대운동대 긴급좌담회(낙원상가 청어람홀)
- 04/08(월) 19:00 청년부채ZERO 더바깽모임 1회차(기윤실 회의실)
- 04/12(금) 07:30 제 3차 상임집행위원회(기윤실 사무실)
- 04/15(월) 19:00 '낙태죄 헌법불합치' 긴급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04/20(토) 14:00 평신도의 상상력 첫 번째 이야기 "기독교는 왜 육을 먹을까?"
(창비학당)
- 04/21(월) 15:30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세종로공원)
- 04/27(토) 14:00 자체휴강프로젝트 나를찾는토요일 #03-마음건강
(정독도서관)
- 04/29(월) 19:00 윤리적 투자 운동 포럼 1회차(기윤실 회의실)
- 05/08(수) 14:00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교육
-서울(열매나눔재단 나눔홀)
- 05/09(목) 14:00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교육
-부산(부산중앙교회)
- 05/10(금) 07:30 제4차 상임집행위원회(기윤실 회의실)
- 05/13(월) 18:00 청년부채ZERO 더바깽모임 2회차(기윤실 회의실)
- 05/14(화) 19:30 크리스천 재무상담 스터디 1회차(기윤실 회의실)
- 05/20(월) 19:00 자발적불편 워크숍-공기청정기 만들기(기윤실 회의실)

- 05/27(월) 19:00 윤리적 투자 운동 포럼 2회차(사교육걱정없는세상)
- 05/28(화) 19:30 크리스천 재무상담 스터디 2회차(기윤실 회의실)
- 06/05(수) 19:00 "공정한 선거, 절차를 넘어 결과까지" 포럼
(열매나눔재단 나눔홀)
- 06/10(월) 18:00 청년부채ZERO 더바깽모임 3회차(기윤실 회의실)
- 06/11(화) 19:30 크리스천 재무상담 스터디 3회차(기윤실 회의실)
- 06/14(금) 07:30 제 5차 상임집행위원회(기윤실 회의실)
- 06/15(토) 10:00 '한국사회의 혐오현상' 세미나(낙원상가 청어람홀)
- 06/22(토) 14:00 평신도의 상상력 두 번째 이야기 "평신도 점프"(창비학당)
- 07/31-08/03 성서한국 전국대회(한국성서대학교)

활동스케치

찾아가는 자발적불편 예배 - 광운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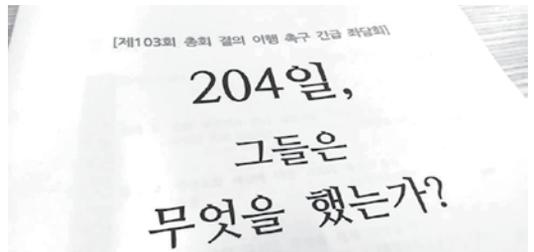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본부(신동식 본부장)은 찾아가는 자발적불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광운선교회가 주최하는 광운대학교 수요채플을 찾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채플이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다. 설교를 위해 강단에 선 손봉호 자문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채플이 가득차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너무 숫자에 집착해서 망가졌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자발적불편에 대해 말할 수 있어서 참 기뻐했습니다. 캠퍼스에서 신앙의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며, 자발적불편을 실천하려는 광운선교회를 응원합니다! **기쁜**

교회세습반대운동대 긴급좌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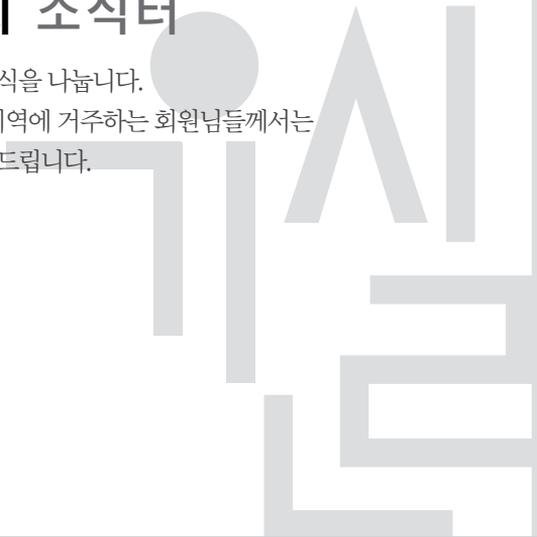


교회세습반대운동대(세반연)가 2019년 4월 4일(화) 오후 7시, 청어람홀에서 '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 긴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독교법률가회,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청어람ARMC가 공동주최했습니다. 2018년 예정통합 총회에서 세습은 불법이라는 결정들이 압도적으로 내려졌지만, 그 이후 총회 결의를 이행해야 할 임원회, 재판국은 7개월이 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총회 결정에 역행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긴급좌담회에서는 이문제를 성토하고 다시 세습을 막기 위해 힘을 내기로 결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습은 불법이고 위상승배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을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해주시고, 달려나와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명성을 깎아먹는 교회세습을 함께 막아주세요. **기쁜**

전국기윤실협의회 소식터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윤실 소식을 나눕니다.
전국기윤실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님들께서는
각 지역 활동에 관심가지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전국기윤실협의회 수련회

2019년 8월 14일(수) ~15일(목) / 인천대학교
기윤실 정신과 지역기윤실 사역 공유, 인천기독교문화유산 답
사 및 송도 투어 등
대상 : 전국의 기윤실 회원, 활동가, 임원 및 그 가족
주관 : 인천기윤실

부산기윤실

1. 하나님나라 제자도 (신학포럼 협력)
- 2019년 6월 3일(월) 19시 / 부산YMCA 18층
- 이현민 박사

2. M-POT 청년아카데미
- 2019년 6월 14일(금) 19시 / 부산YMCA 18층
- 김중수 대표 (대구교육공동체 에코)

인천기윤실

후원자 명단
- 마포중앙교회, 양송

익산기윤실

1. 북 콘서트
- 2019년 6월 21일(금) 19시
- 송인수 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기윤실협의회

지역·실무·연락처·이메일·주소

광주 고경태 운영위원 / 010-8525-0288 / ktyhbg@hanmail.net / (61140)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월산길36

대구 노동욱 사무국장 / 010-2018-4116 / nohandsong@gmail.com / (42480) 대구 남구 대명로65 세아타워 5층

대전 도인호 실행위원장 / 010-8524-3189 / dopriest@naver.com / (34927) 대전 중구 대흥로177, 2층

부산 가정호 사무처장 / 010-9182-7419 / mento123@hanmail.net / (48730) 부산 동구 중앙대로298, YWCA301호

울산 오주철 사무총장 / 010-2565-5208 / ojoocheol@hanmail.net / (44944) 울산 울주군 언양읍 웃방천2길5, 언양영신교회

익산 이용호 사무처장 / 010-3996-7023 / iksancemk@naver.com / (54619) 전북 익산시 동서로222 새소망정형외과 2층

인천 이진오 실행위원장 / 010-8955-2520 / greatc@hanmail.net / (10073)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1로275 롯데캐슬아파트 303동 704호

전남 이광식 사무처장 / 010-3606-6745 / 123kslee@hanmail.net / (59712) 전남 여수시 여서2로51 은현교회

전주 김윤배 사무국장 / 010-4245-9222 / kyb0191@hanmail.net / (55900) 전북 임실군 신덕면 조월길10-8 삼덕교회

진주 한영수 공동대표 / 010-9979-1010 / comnot@hanmail.net / (52701) 경남 진주시 순환로528, 원정스카이펠리스 6층, 주님의교회

청주 홍승표 사무국장 / 010-9452-0214 / hsp0924@hanmail.net / (285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81, 2층

(준)정읍 정종인 집사 / 010-3999-7802 / cibank64@hanmail.net / (56194) 전북 정읍시 학산로 89-25 엘드수목토타파트 101동 903호

(준)제주 김광중 사무국장 / 010-9744-1477 / hymn4747@hanmail.net

교회와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2019년 여름

제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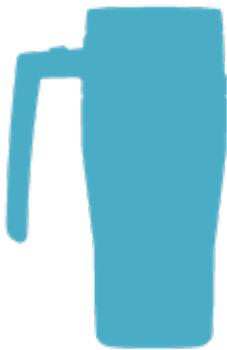
창조세계를 돌보는

그리스도인도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함께 합시다!

이 포스터도 결국 버려질텐데 죄송합니다.

웨이스트



불편해도 텀블러

진부해도 텀블러

또또또또 텀블러

교회, 직장, 학교에서 종이컵/플라스틱컵 쓰지 말고 텀블러를 써주세요.

그밖에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해주세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이뤄집니다. 함께 해주세요!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이메일 cemk@hanmail.net 홈페이지 cemk.org 페이스북 @giyunsil 인스타그램 giyunsil

※ 교회와 함께 하는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은 전국기윤실협의회와 86개 교회가 함께 합니다.